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교회의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된 새교우를 위한 환영회가 다음 주일(21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입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교교육은 20일(토) 오후 2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1월 첫 주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집회때 '떼제 찬양과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피아노 연주자, 기타 연주자, 싱어, 스탭 등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2015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가정예배서 [하늘양식]과 묵상집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 받습니다. 가격은 권당 5,000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개척자들 샘터 재건을 위한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모금액은 250만원이었으며 전액 개척자들에 전달했습니다.

사 61:1~4, 8~11 / 시 126
살전 5:16~24 / 요 1:6~8, 19~28

계 21:1~8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경원 박경선 김현동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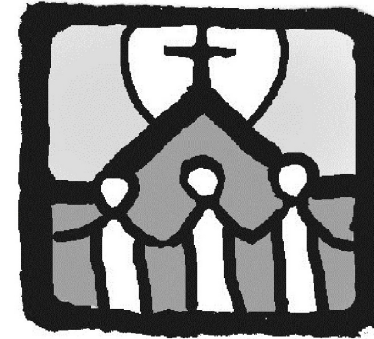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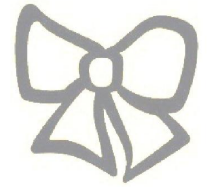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따뜻한 옷을 입게 되었지만 더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더 거칠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되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열리는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살림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권채영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선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순자 김애경 김애순 김영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류준모
 심호선 문복순 박기영 박다니엘 박시내 박예림 서원금 송동준 김진경
 심화섭 정영란 안세진 양상철 박재란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석철 윤영미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현순
 임고은 임승동 백혜숙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정두리 주은경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한훈식 허명선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무명

감사헌금

김용대 박정숙 김정진 김혜정 김진중 김혜영 김희우 노성희 김만균
 문복순 박창운 허정운 신진식 변혜정 심화섭 정영란 은종인 이광재
 이유일 김미희 조옥분 홍성식 이유리 무명17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백혜숙

녹색꿈헌금

김진선 김재환 김흥기 박옥식 박호규 강영님 이영순 정예빈 추현영
 무명17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연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합	방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속	학
	곽권희	김윤수		
	안홍숙	오현정	회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온돌방

- 조향미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해 좋을 땐 마당에 마루에 소쿠리 가득
 곳은 날엔 방 안 가득 무 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 데를 골라 호박씨를 늘어놓았다
 실경엔 주렁주렁 메주 뜨는 냄새 콧속하고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아랫목 술독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청에 버무린
 쌀 콩 깨 강정을 한 방 가득 펼쳤다
 문풍지엔 바람 뽕뽕 불고 문고리는 짹짹 열고
 아궁이엔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먼 날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아침 나팔꽃처럼 금세 활짝 피어나곤 한다
 아, 그 온돌방에서
 세월을 잊고 익어가던 메주가 되었으면
 한세상 취계 만들 독한 밀주가 되었으면
 아니 아니 그보다
 품어주고 키워주고 익혀주지 않는 것 없던
 향긋하고 달콤하고 콧속하고 뜨겁던 온돌방이었으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돌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우리 삶의 바른 토대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삶의 집을 지어가십시오.

아멘. 어느새 편한 것에만 익숙해져 꼭 해야 할 힘든 일들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토대 위에 천천히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당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진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류정욱 선생 황현성 집사

12	영접위원	김인걸 송형운 주경진 정현숙 하미림 김현주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월든 호숫가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소로우에게 사람들은 묻곤 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척 외롭겠군.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과 밤 같은 때는 이웃이 그리울 것 같은데.”

소로우는 그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 자체가 우주 공간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저 별의 넓이는 인간이 만든 기계로는 측정할 수도 없는데, 저 별에 살고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어쩌서 내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지구는 은하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의 질문은 내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그의 동료들로부터 분리시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공간이란 어떤 종류의 공간인가? 아무리 발이 애를 쓰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들끓는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소로우는 홀로 있음 속에서 자기 자신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그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벗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대중 틈에 끼어 있을 때 훨씬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고.

“가장 부드럽고 다정하고, 또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교제는 자연의 사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여러 감각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리 심한 폭풍도 바람 신의 노래로만 들린다.” ...

자신의 외롭지 않음에 대해 소로우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마치 웃는 것 같은 특유의 소리를 내며 크게 울어 대는 저 아비새나 월든 호수가 외롭지 않듯이 나는 외롭지 않다. 저 외딴 호수에게 대체 어떤 벗이 있겠는가? 태양 역시 홀로 있는데, 안개 낀 날에는 간혹 둘로 보이는 때도 있지만 하나는 가짜 태양인 것이다. 신 역시 홀로 존재하지만

악마는 홀로 있는 법이 없다. 악마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 무리는 수도 없이 많다. 초원의 한 송이 할미꽃이나 민들레, 콩잎, 팽이밥, 등에, 땅벌이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외롭지 않다. 셋장이나 지붕 위의 풍향계, 북극성, 남풍, 4월의 소낙비, 정월의 해빙, 새로 지은 집에 든 첫 번째 거미가 고독하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

어떤 사람이 소로우에게, “당신이 들판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당신의 품삯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하고 묻은 적이 있다. 소로우는 말한다. “이 세계는 사업의 장소이며 소란한 경제 성장의 소리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잠자리를 설친다. 그것은 나의 꿈을 방해한다. 한 번이라도 인류가 숨을 돌리는 것을 본다면 기쁠 것이다. 오로지 일, 일, 일 뿐이다. 내가 들판에서 일할 때 속으로 나의 품삯을 생각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떤 갓난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장애인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리라 그 아이가 경제활동에 무능력하게 된 것을 가장 한탄할 것이다. 나는 이 그칠 줄 모르는 상업성의 논리가 삶에서 가장 적대시해야 하는 범죄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제때에 하는 한 번의 바느질이 나중에 할 아홉 번의 바느질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내일 할 아홉 번의 바느질을 막기 위해 오늘 천 번의 바느질을 하고 있다.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결과에도 이르지 못한다.” 소로우는 사회와 문화가 인정하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차원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금씩 굴며 또한 그렇게 사업적일까?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그들과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 맞추게 하라.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